

목포 삼학도서 '김대중 평화회의' 개최

목포시 노벨평화상 21주년 기념
10월 27~28일...세계 석학 초청
평화와 인권 주제 국제규모 회의



김대중평화센터가 주관하는 '2021 김대중 평화회의'가 오는 10월 개최될 예정이다. 목포 삼학도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 <목포시 제공>

목포시가 고(故) 김대중 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 21주년을 맞아 오는 10월 27~28일 목포 삼학도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일원에서 '김대중 평화회의'를 개최한다.

전남도가 주최하고, 김대중평화센터가 주관하는 '2021 김대중 평화회의'는 '코로나19를 넘어 세계평화를 위하여'라는 주제로 기조연설, 세션토론, 부대행사(영상·사진전) 등으로 진행된다.

특히 온·오프라인을 통해 전 세계 20여개국 2000명이 넘는 인원이 참여하는 국제 행사로, 김대중 정신을 계승하고 평화·민주주의·인권을 논의하는 세계적인 행사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대중 평화회의'는 세계적 지도자인 김대중 대통령을 배출한 지역의 위상 제고는 물론 김대중 정신을 기리고 계승하기 위한 국제적 교류의 장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마련됐다. 이를 위해 지난해 전남도가 관련 조례를 제정한 후 조직위원회 구성 및 기본계획 수립 등 행사를 추진해왔다.

조직위원회는 세부 주제, 주요 참여 인사, 세션·

부대 행사 등을 확정해 전남을 민주주의·실천적 평화를 상징하는 곳으로 위상을 확립하고 도민과 함께하는 국제행사가 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목포시는 '삼학도 평화누리 유원지 조성 사업'을 통해 컨벤션 시설이 포함된 5성급 관광호텔 건립을 위한 민자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삼학도는 유달산과 함께 목포를 상징하는 대표적 명소이자, 해안 라인의 중심으로서 목포 관광의 약점인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는데 최적지라는 평

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지난해 4대 관광거점도시 선정에 이어 올해 법정문화도시까지 지정되면 명실상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관광도시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며 "삼학도에 유원지를 조성해 관광인프라를 개선하면 전남 서남권 마이스 산업의 중심거점으로 확고한 위상을 정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목포=박종배 기자 pjb@kwangju.co.kr

해남 남도광역추모공원 화장로 1기 증설

화장장 하루 5회에서 6회로 늘려

운영된다.

해남·완도·진도군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남도광역추모공원이 화장로 1기를 증설해 내달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해남군은 남도광역추모공원의 화장 수요가 급증하면서 지난 2월 착공한 화장로 1기 증설 공사가 6월 중 준공한데 이어 7월말까지 시험운전을 거친 뒤 8월1일부터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번 화장로 증설에는 국비 2억5000만원을 포함해 5억30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됐으며, 화장로 1기 증설로 화장장은 하루 5회에서 6회로 확대

운영된다. 또 남도광역추모공원은 관외 지역 1일전 예약을 5일전 3회차부터 예약할 수 있도록 화장예약 기간을 조정해 인접한 강진, 장흥, 영암군 등 관외 지역의 수요에도 충분히 대비해 나갈 예정이다.

해남군 황산면에 총사업비 195억원이 투입돼 8만여㎡ 부지에 들어선 남도광역추모공원은 4기의 화장로를 비롯해 동백당·매화당 등 봉안당 2동, 자연장지, 유족동산 등을 갖추고 있다.

2019년 4월 개원 이후 지금까지 화장 5682건, 봉안 1049기, 자연장지(유족동산 포함) 891기가 안치됐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목포 외달도서 '안심 피서' 즐기세요

10일~8월 22일 해수욕장 등 개장

해수욕장 이용객의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 사전 안심예약제(네이버 외달도해수욕장 검색 또는 바다여행), 안심콜, 거리두기 구획제(4m)를 시행한다.

목포시가 '슬로시티 섬' 외달도(사진) 해수욕장과 해변을 10일 개장해 8월 22일까지 운영한다.

시는 해수욕장 바닥매트 교체, 샤워장 편의 시설을 정비해 외달도를 찾는 관광객이 편하게 피서를 즐길 수 있도록 준비를 마쳤다.

피서객 건강과 안전을 위해 '코로나19 대응 팀'을 배치해 피서객의 외달도 도착 시 발열 체크 등을 한 뒤 이상이 없으면 안심밴드 착용 후 입장하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샤워장, 화장실 등은 매일 2회 이상 방역소독을 할 계획이다.

목포에서 여객선으로 50분(6km) 정도 떨어진 외달도는 때 묻지 않은 자연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섬으로 다도해 풍광 속에서 호젓하게 휴식할 수 있고 전복, 촌돔 등 보양식도 맛볼 수 있다.

목포시 관계자는 "코로나 청정지역인 목포, 그중에서도 청정해역을 자랑하는 외달도는 피서지로서 제격이다"라면서 "방역에 최선을 다해 코로나로 지친 관광객이 안심하고 피서를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목포=박영길 기자 kyi@kwangju.co.kr

가톨릭목포성지 산정동성당 교황청 지정 준대성전 됐다

천주교 광주대교구 태동지

역사·예술·신앙적 중요성 인정

가톨릭목포성지산정동(순교자레지오)기념성당이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준대성전 지정을 받았다.

준대성전은 역사적, 예술적, 신앙적인 면에서 중요성이 인정되는 성당에 붙여지는 명예로운 칭호로 교황청이 부여한다.

천주교광주대교구 가톨릭목포성지는 5일 오전 10시30분 산정동기념성당의 준대성전 지정과 관련 특별 경축미사를 열고 가톨릭목포성지가 순례자를 비롯한 천주교인의 성모신심 함양과 신앙을 쇄신하는 장소로 거듭나길 기원했다.

이날 특별미사에는 알프레드 슈에레브 대주교(주한 교황대사), 박지원 국정원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원이 국회의원, 김중식 목포시장, 박우량 신안군수 등이 참석했으며 김희중 히지노 대주교가 주례를 맡았다.

천주교 광주대교구의 태동지인 가톨릭목포성지는 1897년 광주대교구 최초의 본당이 세워졌고, 2009년 11월 가톨릭성지 조성사업이 시작되면서 2017년 8월 가톨릭 역사박물관을 개관했다. 같은 해 9월 레지오마리에 나눔봉사기념관을 개관하는 한편, 2020년 6월 대성당 및 부대시설을 준공하면서 명실공히 가톨릭 성지 위상을 갖추게 됐다.



가톨릭목포성지 산정동 기념성당.

산정동 기념성당은 지하1층, 지상4층(대성당 700석, 소성당200석, 교리실, 식당, 전방대, 만남의 장소)규모로 순례자와 함께 미사에 참여할 수 있다. 특히 2층 성당 제대에는 2000년전 예수가

골고다 언덕을 향해 지고갔던 성 십자가 보복과 소화테레사 성녀와 그의 부모 마르탱 부부성인, 성녀 유해가 안치되어 있다.

/목포=박종배 기자 pjb@kwangju.co.kr

진도군 모사리 해역에 주꾸미 250만 마리 방류

진도군이 최근 고군면 모사리 일원 해역에 수산 자원 회복과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주꾸미 종자 250만 마리를 방류했다.

주꾸미의 생육에 적합한 염분, 수온, 먹이사슬 등 해역 특성을 고려해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 진도지원, 어업인 등 30여명이 참여했다.

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원 자원조성연구소에서 주꾸미 종자의 이송부터 방류까지를 직접 수

행했다.

이번에 방류한 주꾸미 종자는 어업인 대다수가 선호하고 있는 고가의 인기 품종으로 어업인들의 고소득 품종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졸깃하고 감칠맛이 도는 주꾸미는 우리나라 서남해안에 주로 서식하며 피로 해소에 좋은 타우린과 불포화지방산인 DHA 등을 다량 함유하고 있다. /진도=박현영 기자 hypark@kwangju.co.kr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